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씨,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이삼복 서울대 교수 등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최근 실시한 2008 장애인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희망의 증거를 보여줘'와 '직장 내 스트레스 극복 에세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들의 스토리 역시 그렇다. 주인공인 박현식씨와 한서영씨를 만나 장애를 극복한 이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도전으로 얻은 희망의 길 장애인들에 용기 줬으면...

'희망의 증거를' 수기 최우수

광주선광학교 교사 박현식씨



투병생활로 보냈던 것이 안타까워 30살에 수능시험을 준비, 이듬해 우석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했다.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겁지만 '선생님'하고 부르며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때문에 용기를 얻고 있다. "우리가 항상 팔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장애도 마찬가지로 같아요. 제가 장애인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은 휠체어 탈 때와 편견이 부딪힐 때입니다."

"장애 때문에 꿈을 실현시키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제 이야기가 희망과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도전했죠. 다행히 방학이라 창작에 전념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광주선광학교 교사인 박현식(38·신체장애1급)씨가 최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최한 2008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희망의 증거를 보여줘'에 응모해 에세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수상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하반신 마비라는 장애를 얻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그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현재 특수학교인 광주 선광학교에서 2년째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씨가 장애를 얻게 된 것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94년. 진지공사 도중 동굴이 무너지면서 척추 신경이 손상돼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 "걸지 못한다는 사실보다 더 괴로웠던 것은 밖에서는 작은 일조차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였죠. 세상으로 뛰어들고 싶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했어요." 박씨는 생기 넘치게 보냈어야 할 20대를

대화로... 긍정의 힘으로... 고객 마음의 문 열었어요

'직장 스트레스 극복' 최우수

생활정보지 상담원 한서영씨



"장애인들이 먼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비장애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저 스스로 노력해서 삶을 살다 보니 하루 하루가 행복합니다." 생활정보지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서영(38·뇌성마비 3급)씨 역시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 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다. 대학 졸업 후 줄곧 일을 해왔던 한씨는 오랜 직장 경험을 살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난달 실시한 '직장 내 스트레스 극복 에세이 경진대회'에 도전,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씨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스트레스 극복법은 대화다. 한씨는 "장애인들이 직장생활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편견을 갖고 대하는 조직의 분위기라는 것을 에세이를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성인이며 서로에게 불만이 있거나 문제점을 느낄 때는 대화로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한씨 역시 팔과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몸으로 직장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한씨는 "전화상담과 워드작업을 동시에 해야하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 비해 일을 처

리는 속도가 늦어 고객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하지만 장애인임을 밝힌 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면 화를 내던 고객들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엘렌켈러, 에디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따뜻한 시선이 공존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 =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종교 칼럼



박병주

몇 년 전에 상영돼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영화가 있었다. 제작비도 별로 들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거창한 주제도 없는 단순한 줄거리의 영화인 이정향 감독의 '집으로'다. 당시 400만 이상의 관객들이 관람했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영화의 분위기와 주인공들의 이미지, 특히 상우 외함머니를 통해서 잃어버린 고향과 우리의 집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고정된 정착 사회가 아닌 움직이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정된 삶의 자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왔지만 산업화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을 고향을 떠나 돈, 자녀교육 그리고 직장에 따라 정처없이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사회가 된 것이다. 더이상 누런 곡식이 익어가는 농촌의 들녘과 끈끈한 시골 정에 의미를 두고 살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공통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이

고향의 의미

를 '향수병'이라 한다. 흔히 집이 없는 집안을 가리켜 미국에서는 '홈리스'(homeless people·집이 없는 사람)라고 부른다. 어쩌면 우리 모두 고향과 집을 잃어버린 '영혼의 결인'이기에 명절마다 '귀향 전쟁'까지 치르면서 고향을 다녀오는 것은 아닐까? 귀향 본능이 강한 어류 중 연어라는 게 있다. 연어는 귀소 본능과 모험의 속명을 안고 살아가는 물고기다. 자신이 태어난 좁은 고향을 떠나 물새와 송어 떼의 공격을 이겨내며 수천리 때로는 수만리 넓은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산란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연어가 가진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 모친의 냄새를 따라 정확하게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온다. 정호승 시인의 대표적인 시집 '사랑하다가 죽어 버려라'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시에는 죽음에 대한 비유를, 즉 죽음을 뒤 찾아오는 영혼의 고향을 연어때의 귀향에 빗대어 표현했다. '강가에 초승달이 뜬다/ 연어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린다/ 나그네 한 사람이 숲에 취해/ 길 가에 엎드려 있다/ 연어 한 마리가 나그네의 가슴에/ 뜨겁게 산란을 하고/ 고요히 숨을 거둔다.' 시인은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티브를 사랑에서 찾았고 죽음에 이르는 인생의 길을 연어의 귀소 본능에서 발견했던 것이다. 나 역시 지난 추석에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을 찾아 추억을 함께했던 그리운 형제와 친척들을 만났다. 또 흠뻑새가 나는 고향 집도 다시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먼저 가신 조부모, 부모가 누워계신 산소에 성묘를 하면서 내가 가야 할 영혼의 고향, 그 길을 다시금 확인해봤다. 짧은 연휴 때문에 고향 오고가는 일이 힘들었지만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해 돌아온 지금, 고향 생각에 다시금 마음이 훈훈해 진다. 오랜 세월 늘 아래로 베푸는 어른들의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자식의 도리, 이렇게 서로를 아끼며 사는 게 바로 가족의 힘이다. (광주 열린교회 담임목사)

종교 차별 신고하세요

문광부 내달 1일부터 신고센터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신설과 대통령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부 내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교계 등에서 요구해온 공직자의 종교 중립 제도화 방안을 수용,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2항을 18일자로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 종교 차별 행위를 하거나 관공적인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전화(02-720-1994)나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 코너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여성 장애인 발명 아이디어 공모 합니다

여성부는 한국여성발명협회와 함께 하는 '여성장애인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 장애인의 발명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등록된 여성장애인 이 참가할 수 있으며, 생활 속에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엔 응모가

능하다. 선정작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2008 장애여성발명아이디어대회'에서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2-538-2710. /이은미기자 emlee@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multiple ads for services like 'Seojoil' (세조일), 'Namseong' (남성강한힘), 'Moa' (모아보정기), and 'Juna' (주나).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promotional text for various products and services.